

풍력박람회, 제주도에서 2월21일까지 개최

제2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가 2월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박람회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창의연구소·아시아풍력협회·한국풍력산업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강철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한국도 자연친화적이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풍력에 관심을 두고 풍력 발전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이 인류의 생존방식을 변화시킬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람회에서는 한국 해상 풍력의 과제, 해상풍력의 활성화 방안, 해상풍력 공급망 개요, 수익성 해상풍력을 위한 고려사항, 해상풍력단지 발전, 재생 가능한 산업의 보고, 서남지역 풍력발전기 설치 선의 설계요건, 일본 부유식 실험 장소의 사례 연구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2월21일까지 이어진다.

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 100개 생산기업이 200개 부스에서 해상·대형 풍력발전기, 다양한 풍력발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풍력발전 관련 장치 등을 전시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필리핀 등 아시아 풍력산업 관계자 등 8000여명이 참가하며 아시아 주요 국가의 풍력에너지 정책 개발과 정보교환 창구 구실을 할 아시아풍력협회도 발족했다.

제주도는 아시아풍력협회 사무국이 설치되면 아시아 풍력발전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2/20>